

시설	항 목	예	아니오	기타 수치
출입구(문)	6-1	출입구(문)은 통과 유효폭이 0.8m이다.		
	6-2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m이다.		
	6-3	출입구의 바닥면에 문턱이나 높이차이가 있다.		
		출입문이 자동문이다.		
	6-4	회전문이 있을 경우 다른 형태의 문이 설치되어 있다.		
	6-5	여닫이문의 도어체크가 있을 경우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입니까?		
	6-6	출입문의 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0.9m 사이에 있다.		
	6-7	출입문옆 벽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다.		
복도		출입문 벽면에는 방이름, 번호를 표기한 것이 3M 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하다.		
	6-8	건축물의 주출입구의 30cm 전면에는 점형블록이나 다른 바닥재의 질감을 사용했다.		
	7-1	복도의 유효폭은 1.2m 이상이다.(사물함과 장애물 제외)		
		복도가 3m 앞 사람 얼굴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어렵다.		
		복도에서 강의실까지 손잡이가 있다.		
		손잡이의 지름은 3.2cm-3.8cm 사이이다.	강의실앞 단절	
			강의실앞 이어짐	
		복도에서 강의실까지 손잡이에 점형 정보가 있다.		
	손잡이는 연속하여 설치되어 있다.			
7-2	복도의 바닥면에 높이차이가 있다.			
7-3	높이차이가 있다면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다.			
7-4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다.			
7-5	계단, 장애인용승강기, 화장실의 30cm 전면에는 점형 블록을 설치하거나 다른 바닥재의 질감을 사용했다.			
7-6	통로 위부분은 바닥으로부터 2.1m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고 있다.			
7-7	유효높이 2.1m 이내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60cm 이하에 접근방지용 난간 또는 보호벽이 설치되어 있다.			

시설	항목	예	아니오	비고
계단	8-1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m 이상이다.		
	8-2	계단에는 철크면이 설치되어 있다.		
	8-3	디딤판의 너비는 28cm 이상이다.		
	8-4	철크면의 높이는 18cm 이하이다.		
	8-5	동일한 계단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철크면의 높이는 같다.		
	8-6	철크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도 이상이다.		
	8-7	계단코가 3cm 이상 돌출되어 있지 않다		
	8-8	계단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다.	한면	
		손잡이는 위쪽과 아래쪽이 있는 이중이다.	양면	
		손잡이의 형태는 둥근형태이다.		
		손잡이의 지름은 3.2cm-3.8cm 사이이다.	✓	
	8-9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30cm 이상의 수평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다.		
8-10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충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다.			
8-11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30cm 전면에는 점형블록 설치 또는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고 있다.			
8-12	계단의 수는 몇개입니까?			
승강기	9-1	승강기가 있다.		
	9-2	승강기는 전충운행을 하고 있다.		
	9-3	장애인용 승강기가 있다.		
	9-4	장애인용 승강기는 주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9-5	장애인용 승강기의 전면에는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이 있습니까?		
	9-6	승강장과 승강기 바닥의 틈은 3cm 이하이다.		
	9-7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1m 이상, 길이 1.35m 이상입니까?		

승강기	9-8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80cm이상이다.			
	9-9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1.2m사이에 설치되어 있다.			
	9-10	조작반, 통화장치 등에 점자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다			
	9-11	승강기 내부에 수평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다.			
	9-12	유효 바닥면적이 1.4m×1.4m 이내인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 거울 등이 부착되어 있다.			
	9-13	사람이나 물건등이 문 중간에 끼었을 때 문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린다.			
	9-14	각층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80cm전면에는 점형블록이나 다른 질감의 바닥재가 설치되어 있다.			
화장실	10-1	각층에 화장실이 있다.			
	10-2	총화장실(변기)의 숫자는 몇개입니까?			
	10-3	그 가운데 변기 출입문의 유효폭이 70cm이상인 곳이 있다.			
	10-4	화장실의 주출입구에 턱이나 높이차이가 있다.			
		주출입구에 높이차이가 있을 경우 경사도가 설치되어 있다.			
	10-7	장애인용 화장실이 남녀 따로 있다. 남녀 공용으로 1개만 있다.			
	10-8	장애인용 화장실은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설치되어 있다.			
	10-9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문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			
	10-10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 차이가 없다.			
	10-11	화장실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이다.			
	10-12	화장실의 30cm전면에는 점형블록이나 재질이 다른 바닥재가 설치되어 있다.			
		화장실 출입구 여는 방향은 어느 쪽입니다.		안쪽	
		화장실 문이 커튼식이다.		바깥쪽	

화장실	10-13	화장실의 출입문 옆 벽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다.			
	10-14	세정장치, 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 누름버튼식, 레버식 등으로 되어 있다.			
	10-15	대변기의 칸막이는 유효바닥면적이 폭 1m이상, 깊이 1.8m이상 되도록 설치되어 있다.			
	10-16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유효폭 75cm이상의 활동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10-17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80cm 이상이다.			
	10-18	출입문이 여닫이 식일 경우 바깥쪽으로 열린다.			
	10-19	대변기는 양변기이다.			
	10-20	대변기의 좌대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40cm이상, 45cm이하이다.			
	10-21	대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다.			
	10-22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60-70cm 사이에 설치되어 있다.			
	10-23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90cm이상이다.			
	10-24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은 바닥면으로부터 60cm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되어 있다.			
	10-25	세정장치, 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10-26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			
	10-27	소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및 수직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다.			
	10-28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 80-90cm 사이이다.			
	10-29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m -1.2m 사이에 설치되어 있다.			
	10-30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85cm 이하, 하단 높이는 65cm 이상이다.			
	10-31	세면대의 밑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다.			

강의실

건물이름 () 강의실 호수 ()

분류	항목	예	아니오	기타 수치	
설치여부	1-1 강의실에 노트북 사용이 가능한 랜선용 좌석이 있다.				
	강의실에 휠체어 장애인용 좌석이 있다.				
1-2	계단형 강의실 경우 휠체어 장애인이 이동 가능하다.				
설치기준	출입구(문)은 통과 유효폭이 0.8m이다.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m이다.				
	1-8 출입문이 자동문이다.				
	1-9 회전문이 있을 경우 다른 형태의 문이 설치되어 있다.				
	여닫이문의 도어체크가 있을 경우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입니까?				
	출입문의 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0.9m사이에 있다.				
	출입문의 손잡이는 레버식인가 회전식인가	회전식			
		레버식			
	출입문옆 벽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다.				
	출입문 벽면에는 방이름, 번호를 표기한 것이 3M 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하다.				
강의실 주출입구의 30cm 전면에는 점형블록이나 다른 바닥재의 질감을 사용했다.					
강의실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차이는 3cm이하이다					
주출입구 입구 안쪽에 점자 블록이 깔려있다.					

중앙 도서관

분류	항목	예	아니오	기타 수치	
유도 및 안내설비	11-1 점자 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이 주요시설이나 방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각 열람실 및 도서 정보에 대한 안내 표지가 있다.				
도서 검색	인터넷으로 도서 검색이 가능하다.				
	음성지원 도서 검색이 가능하다.				
	도서 검색에 대한 1:1 대인 서비스가 가능하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출연장이 가능하다.				
열람석	13-1 장애인열람석이 설치되어 있다.				
		서고의 경우 책장사이 간격이 90cm이상이다.			
		서고의 경우 입구가 90cm이상이다.			
		서고의 경우 지하철 개찰구 형태라 들어갈 수 없다.			
		장애학우를 위한 별도의 열람실이 있다.			
	13-2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				
	13-3 열람석 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70-90cm 사이이다.				
	13-4 열람석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65cm이상, 깊이 45cm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접수대 작업대	14-1 접수대의 전면에는 1.4m×1.4m의 활동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14-2 접수대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70-90cm 사이이다.			
14-3 접수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65cm 이상, 깊이 45cm이상의 공간이 있다.					
비치용품	15-1 도서관에 약사용 확대 독서기 및 음성지원 컴퓨터가 있다.	대			
	15-2 도서관내 점자프린터가 있다.				

학생 식당

식당 이름 ()

분류	항목	예	아니오	기타 수치
설치여부	1-1	식당이 self-service이다.		
	1-2	식당에 휠체어 장애인용 좌석이 있다.		
설치기준		출입구(문)은 통과 유효폭이 0.8m이다.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m이다.		
	1-8	출입문이 자동문이다.		
	1-9	회전문이 있을 경우 다른 형태의 문이 설치되어 있다.		
		여닫이문의 도어체크가 있을 경우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입니까?		
		출입문의 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0.9m 사이에 있다.		
		출입문의 손잡이는 레버식인가 회전식인가		
		출입문 벽면에는 방이름, 번호를 표기한 것이 3M 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하다.		
		식당 주출입구의 30cm 전면에는 점형블록이나 다른 바닥재의 질감을 사용했다.		
		식당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차이는 3cm 이하이다		
	식당 주출입구 입구 안쪽에 점자 블록이 깔려있다.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3-1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차이는 3cm 이하이다.		
	3-2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가 3cm 이상일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였다.		
식판대	14-1	식판대의 전면에는 1.4m×1.4m의 활동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14-2	식판대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70-90cm 사이이다.		
	14-3	접수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65cm 이상, 깊이 45cm 이상의 공간이 있다.		

기숙사

기숙사 이름 ()

분류	항목	예	아니오	기타수치
접근 여부	h-fy	장애 학생에게 기숙사 배정 우선(연속)권이 있다.		
	h-fyr	장애 학생에게 기숙사 방 배정권이 있다.		
	he-y	장애 학생과 가족, 도우미를 위한 가족동이 따로 있다.		
	he-yr	장애 학생의 기숙사(방)이 따로 있다.		
	hy-b	장애학생 기숙사와 일반 기숙사 회비 가격 차가 있다.		
		기숙사 신청을 위한 정보가 인터넷에 공지되어 있다.		
방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m이다.		
		출입구 여는 방향은 어느 쪽인가		안쪽 바깥쪽
		출입문이 자동문이다.		
	d	출입문에는 제실 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		
		여닫이문의 도어체크가 있을 경우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이다.		
		출입문의 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0.9m 사이에 있다.		
		출입문의 손잡이는 레버식인가 회전식인가		
		출입문 벽면에는 방이름, 번호를 표기한 것이 3M 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하다.		
		장애 학생을 위한 침대가 따로 있다.		
	B-qg	주출입구 입구 안쪽에 점자 블록이나 다른 바닥재의 질감을 사용했다.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3-1	기숙사 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차이는 3cm 이하이다.		
	3-2	출입구의 높이 차이가 3cm 이상일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였다.		
경보 및 피난설비	dv-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 형태의 비상경보등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		
부대시설		장애 학생을 위한 샤워실 편의시설이 있다.		
	hy-n	장애 학생을 위한 컴퓨터(설)이 있다.		

무장에 대학교 만들기

사진으로 보는 대학의 편의시설

I. 국내 대학의 편의시설

II. 영국과 독일 대학의 편의시설

대학의 편의시설

- 국내

* 다음에 소개되는 국내 대학내 편의시설 사진은 2001년 무장애대학 만들기 운동에 참가한 대학교의 학생들이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하며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이 많은 건물중에 장애인이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이동할 수 있는 건물은 얼마나 될까요?



○ 대구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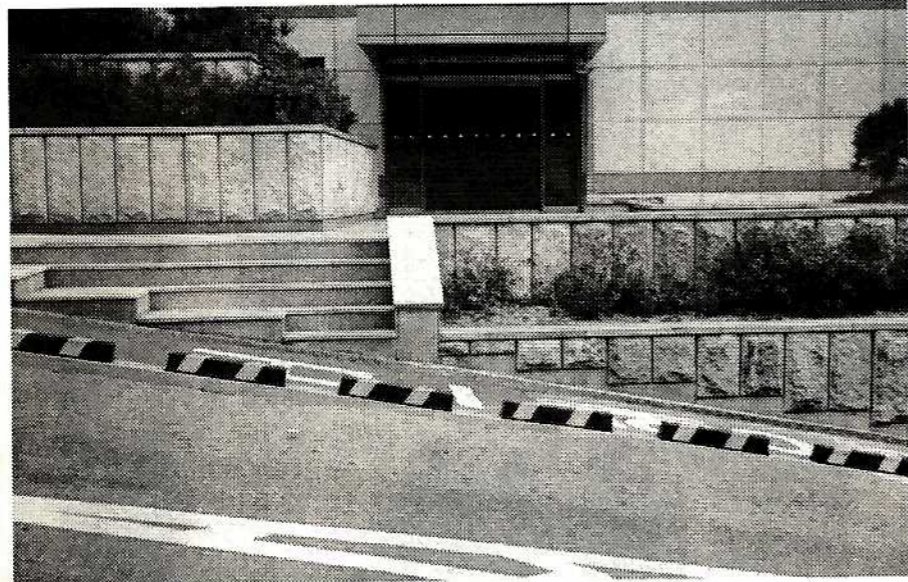
○ 고려대학교 정경대 우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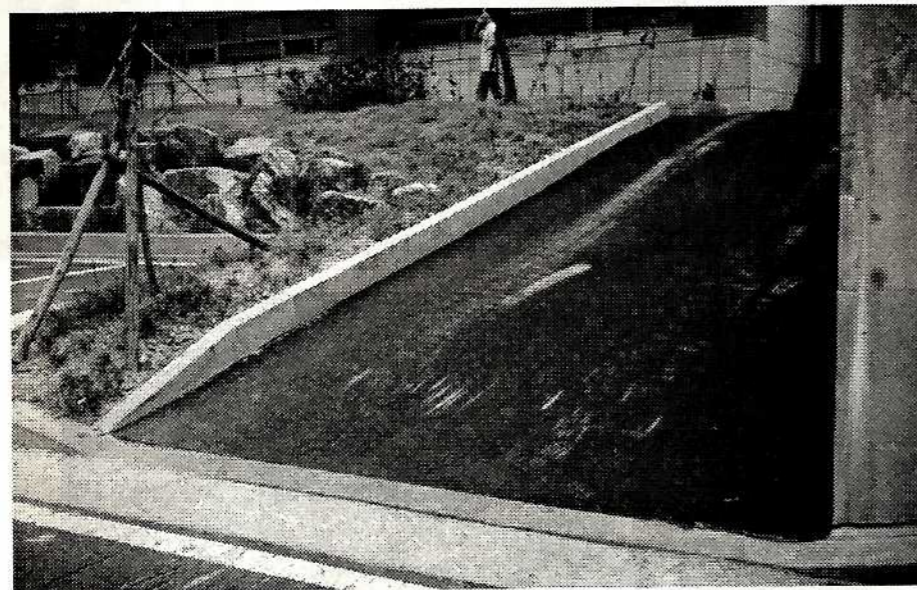
○ 공주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종합과학관으로 오르는 길



○ 단국대학교 서관 3층 입구



○ 고려대학교 날마다 등산하는 기분으로 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부러워할 사람이 있을까. 하루에도 산을 몇 개나 오르는 기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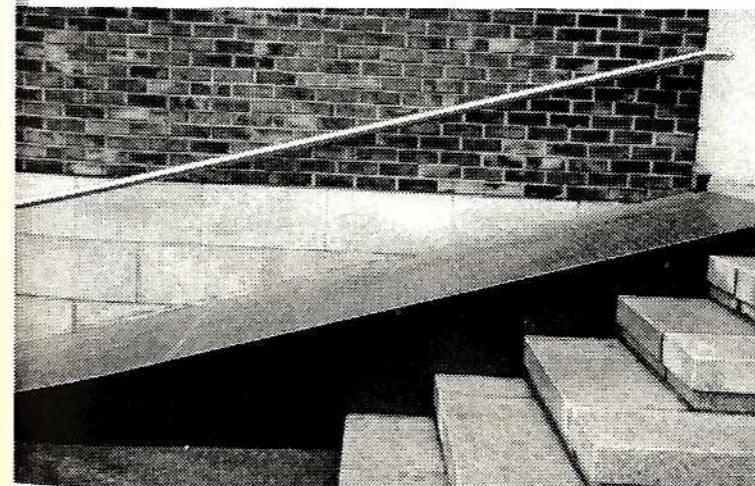
누구를 위한 경사로인지 정말 모르겠다!

서너 개의 계단 옆에 만들어진 경사로,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정말 알 수 없는 죽음의 경사로이다. 이왕 만들때 이용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만든다면 얼마나 좋을까?



○ 단국대학교 학생회관과 이부관의 연결경사로

전혀 용도를 알 수 없는 나무판... 휠체어가 미끄러지지 말라고 만들어놓은 미끄럼 방지판,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의심스러운 경사로도 아닌 것이 계단도 아닌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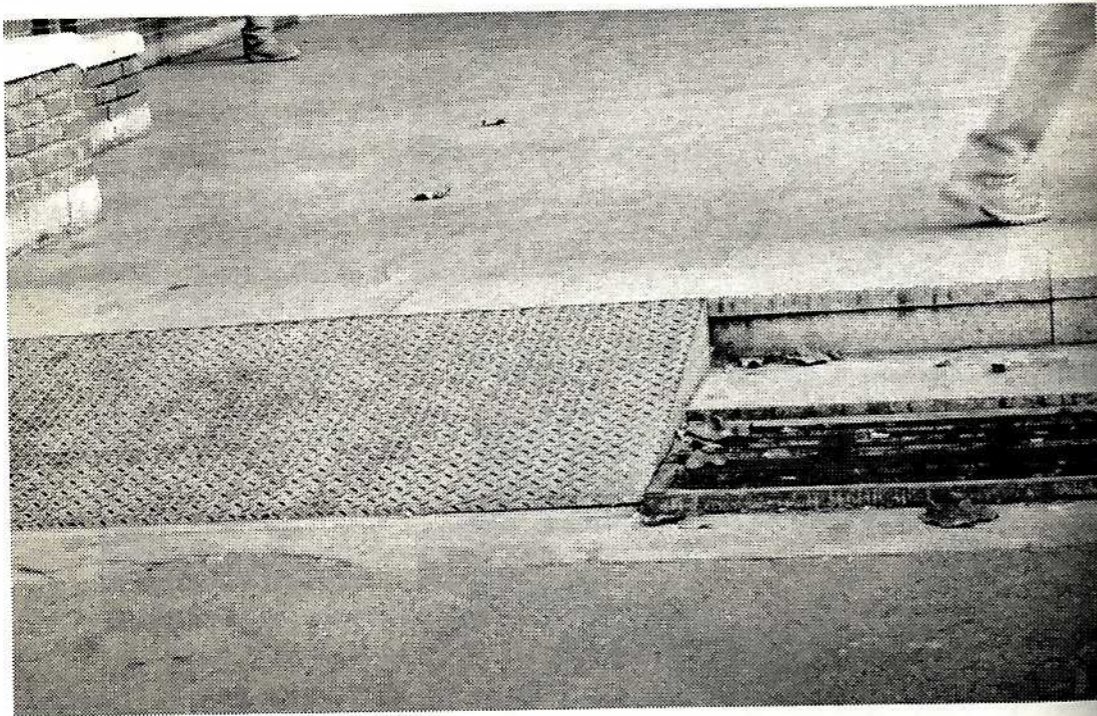


○ 단국대학교 음악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너무나 위험한 경사로, 양쪽에 손잡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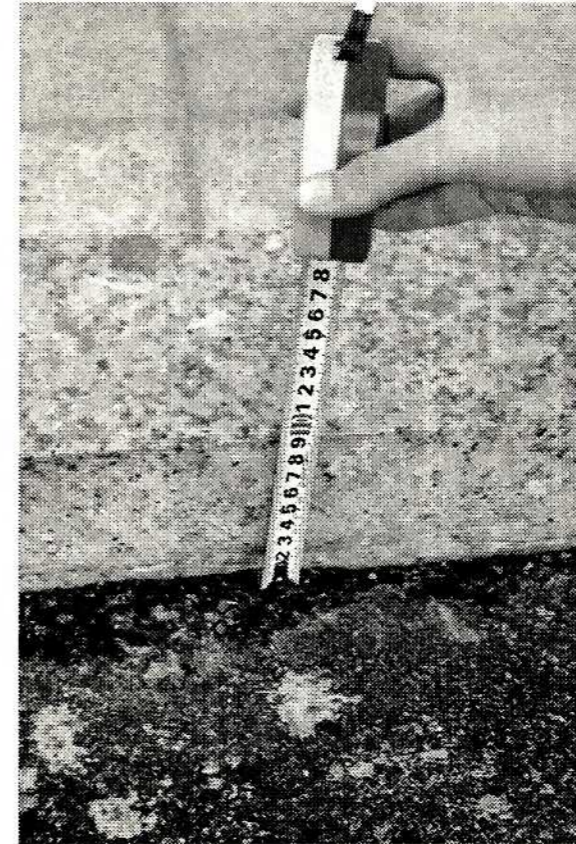


○ 고려대학교 3층 출입구 경사로 경사도 급한데 경사로 위쪽에는 턱까지 버티고 있다.



○ 대구대학교

턱을 좀 없애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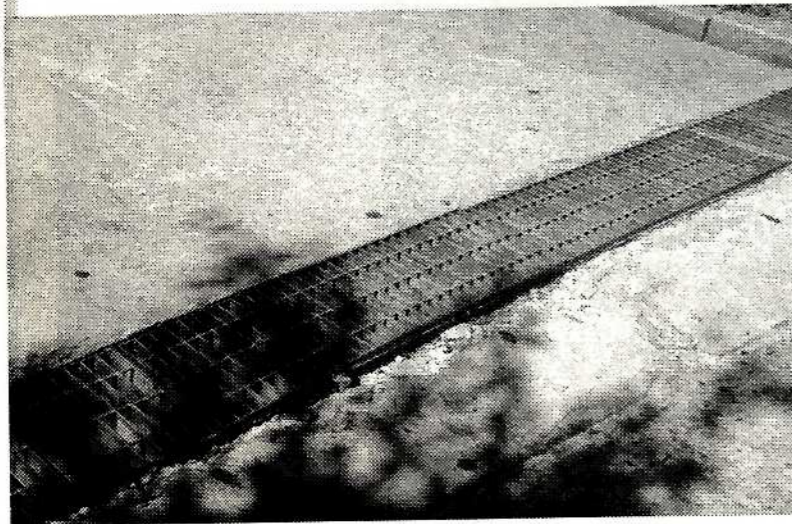
○ 가톨릭대학교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학생이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이동할 수 있는 턱의 높이는 3cm 미만이다. 그러나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이 보도와 차도를 구별할 수 있는 턱은 3cm 이상이다. 따라서 연속 경사로를 두어 턱을 낮추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된다.



○ 서강대학교

옥의 티



가톨릭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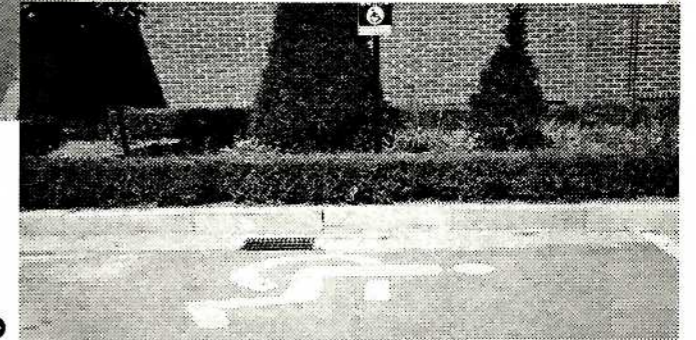
배수구는 시각장애인의 흰지팡이, 목발 그리고 휠체어의 앞바퀴 등이 빠져 위험 할 수도 있다. 학생들의 안전을 배려한 다른 시설은 없을까?

무늬만 장애인전용주차장?!

10분이라는 짧은 쉬는 시간에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어떻게 이동을 할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승용차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건물의 주요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휠체어를 사용하는 학생이 휠체어를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기 위하여 폭 3.3m 길이 5m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를 하게되면 과태료10만원을 물어야한다.(2시간이상 12만원)



전주대학교



삼육대학교 바울관



삼육대학교 신학관

약 75개의 주차구역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 2개밖에 없었지만 폭 2.10m 길이 3.93m 인 무늬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그림의 떡, 장애인전용 공중전화



○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외에는 화장실, 공중전화 등은 장애인경음이 되어야한다. 수많은 공중전화 중에 한군데만 장애인전용으로 만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더 분리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않는다. 편의시설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대학은 건강증진센터?!

2001년도 교육개혁추진우수대학으로 선정된 전주대학교에도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다. 대학은 건강하고 젊은 20대의 젊은 청년만을 위한 것이 되었다. 대학에는 여성을 위한, 장애인을 위한, 몸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는 찾을 수 없었다. 오직 혈기왕성한 남성들을 위한 시설이 중심이다. 그 어느 곳에도 장애인과 여성을 배려한 곳은 찾아볼 수가 없다.



○ 전주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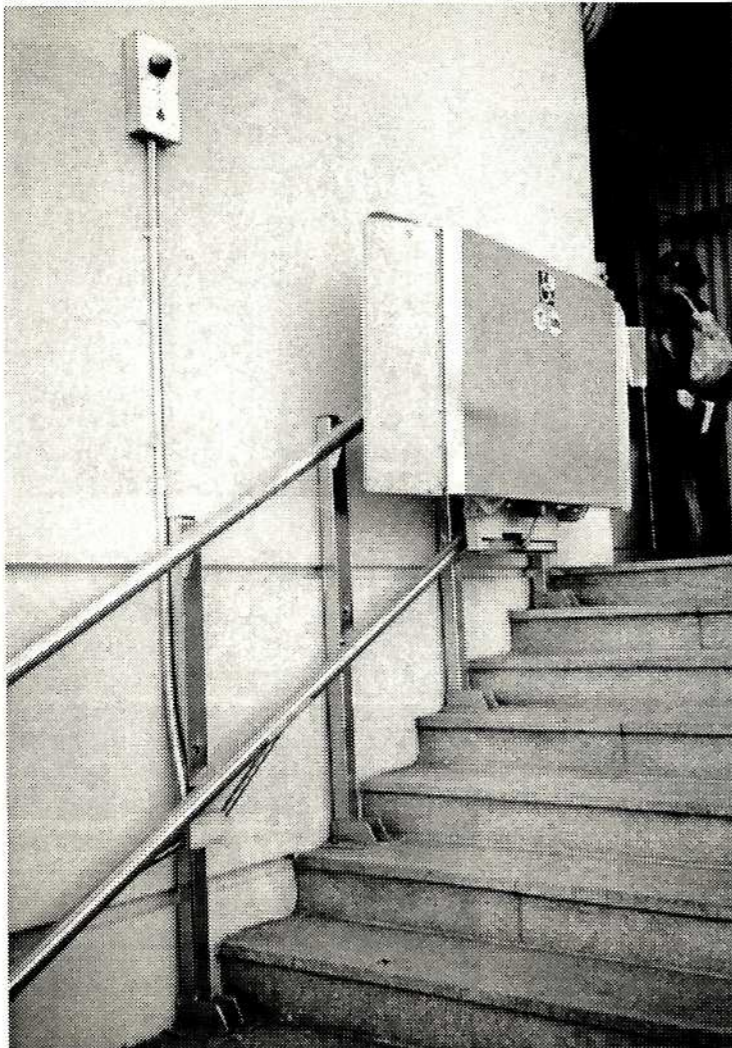


○ 삼육대학교 과학관의 주요 출입구

○ 숙명여자대학교 본관

누가 타고 싶나, 휠체어리프트!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학생만 이용할 수 있는 리프트가 아니라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학생도, 시각 장애학생도, 몸이 불편한 비장애학생도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 우리는 휠체어리프트를 거부한다.



○ 숙명여자대학교 교수회관
숙명여자대학교의 유일한 휠체어리프트, 그러나 학생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교수회관에 설치된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작동할 수 있는 열쇠가 없다는데...그럼 전사용?



○ 이화여자대학교 음대의 수직형리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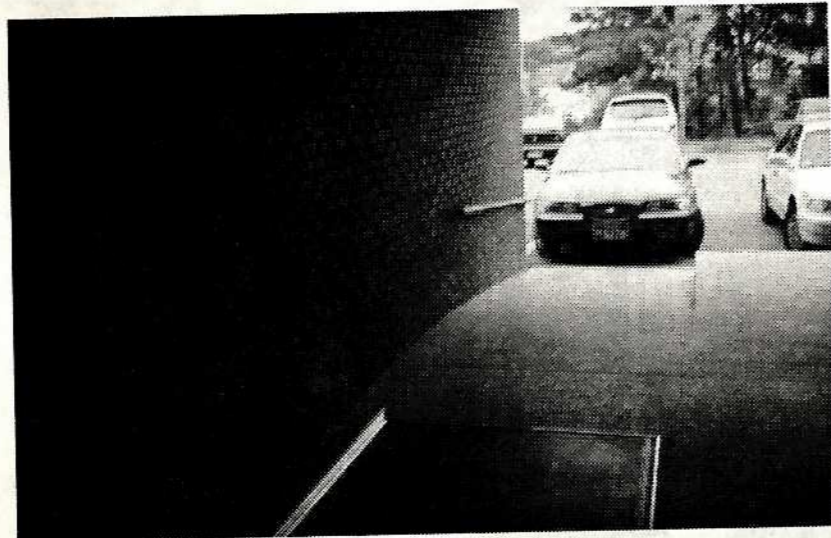
○ 대구대학교

다른 대안이 없나? 계단 옆 경사로



○ 삼육대학교 에스라관

출입문 바로 앞에 유효공간이 없이 경사가 놓여있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여유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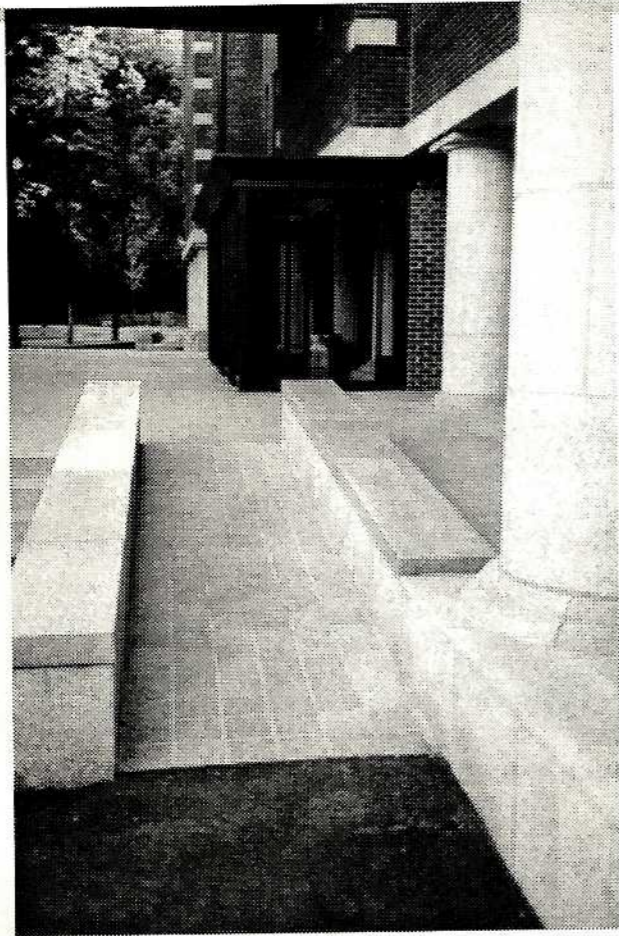
○ 공주대학교 경사가 있다고는 하지만 경사를 가로막고 있는 자동차 때문에 경사를 이용할 수 없다.



○ 공주대학교 나무로 만들어 놓은 경사로는 보기만해도 위험해 보인다.



○ 공주대학교 손잡이도 이중으로 해놓기는 했는데... 그 기울기가 너무 심하네요.



● 삼육대학교 신학관



● 우석대학교 신학생회관 입구를 들어가기 위해 단차극복을 위한 경사로 그러나 대단히 미끄럽다.

우리가 바라는 출입구는!

누구나 편리한 출입구는 계단도 아니고 경사로도 아닌 약간의 기울기가 있는 평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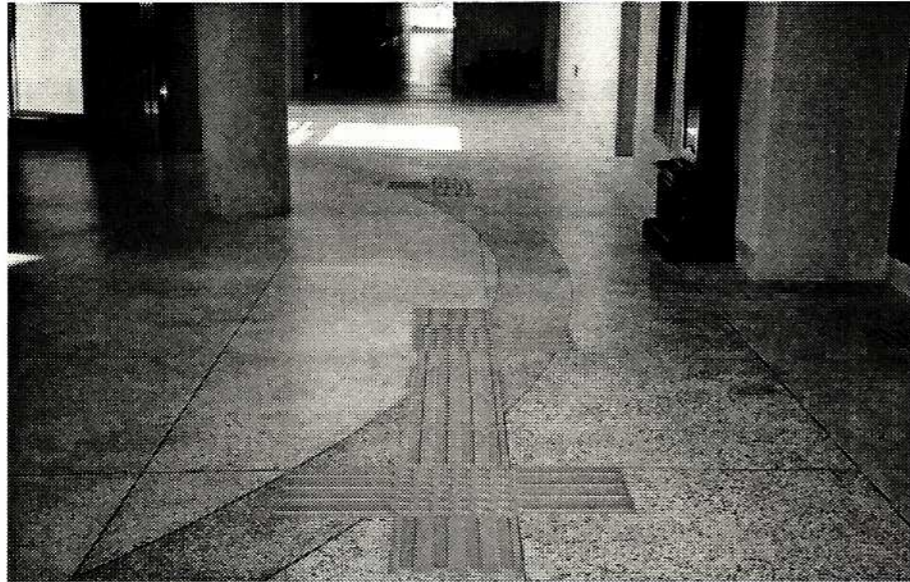


● 서강대학교



● 서강대학교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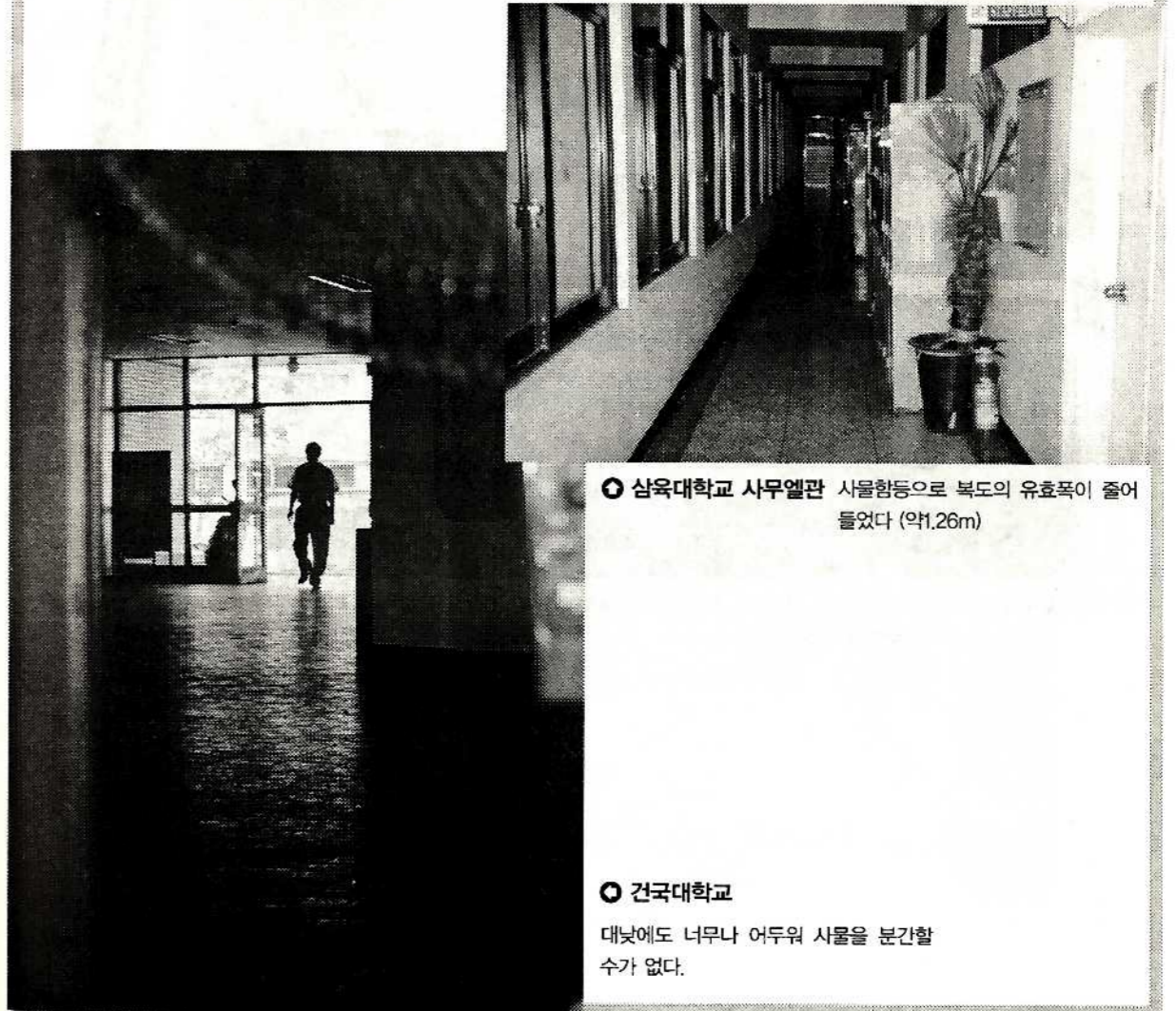
○ 대구대학교의 점자유도블럭



○ 우석대학교 신학생회관 점자 표시가 되어있는 음료수 자판기 그러나 점자로 된 음료수 이름이 많이 틀렸다.



○ 우석대학교 신학생회관 점자표시가 되어있는 커피자판기 그러나 빠진 부분도 있고 틀린 글자도 있다



○ 삼육대학교 사무엘관 사물함등으로 복도의 유효폭이 줄어들었다 (약1.26m)

○ 건국대학교
대낮에도 너무나 어두워 사물을 분간할 수가 없다.

빛좋은 개살구 장애인화장실



○ 대구대학교 장애인은 중성이 아니다. 남성, 여성 누구나 사용하는 장애인전용이 아니라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



○ 가톨릭대학교
문이 안으로 열려 화장실 안으로 들어
가서 문을 닫을 수가 없네요.



○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세면대 아래 장애물로 인해 휠체어가 접근을 할 수가 없네요.



○ 고려대학교



○ 삼육대학교 바울관
사물함인가 화장실인가?



○ 고려대학교 생명공학관 특수동 장애인용 화장실 화장실에 웬 세탁기!



○ 전주대학교 일반 화장실에 손잡이만 덩그러니,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화장실



○ 서강대학교 문이 안으로 열려 화장실 문을 닫을 수가 없네요.



○ 한양대학교 세면대가 튀어나와 변기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네요.



○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관 세면대와 변기 사이를 가로막는 안전손잡이 때문에 볼일을 보기가 조금 어렵네요.

나도 학생식당에서 밥먹고 싶다!



○ 건국대학교



○ 건국대학교 식당으로 내려가는 계단!



○ 고려대학교 학관 식당 배식대 셀프서비스로 배식을 하며 배식대외 높이가 너무 높고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 이용하기 어렵다.



○ 이화여자대학교 학관 대형강의실 옆의 경사로



● 대구대학교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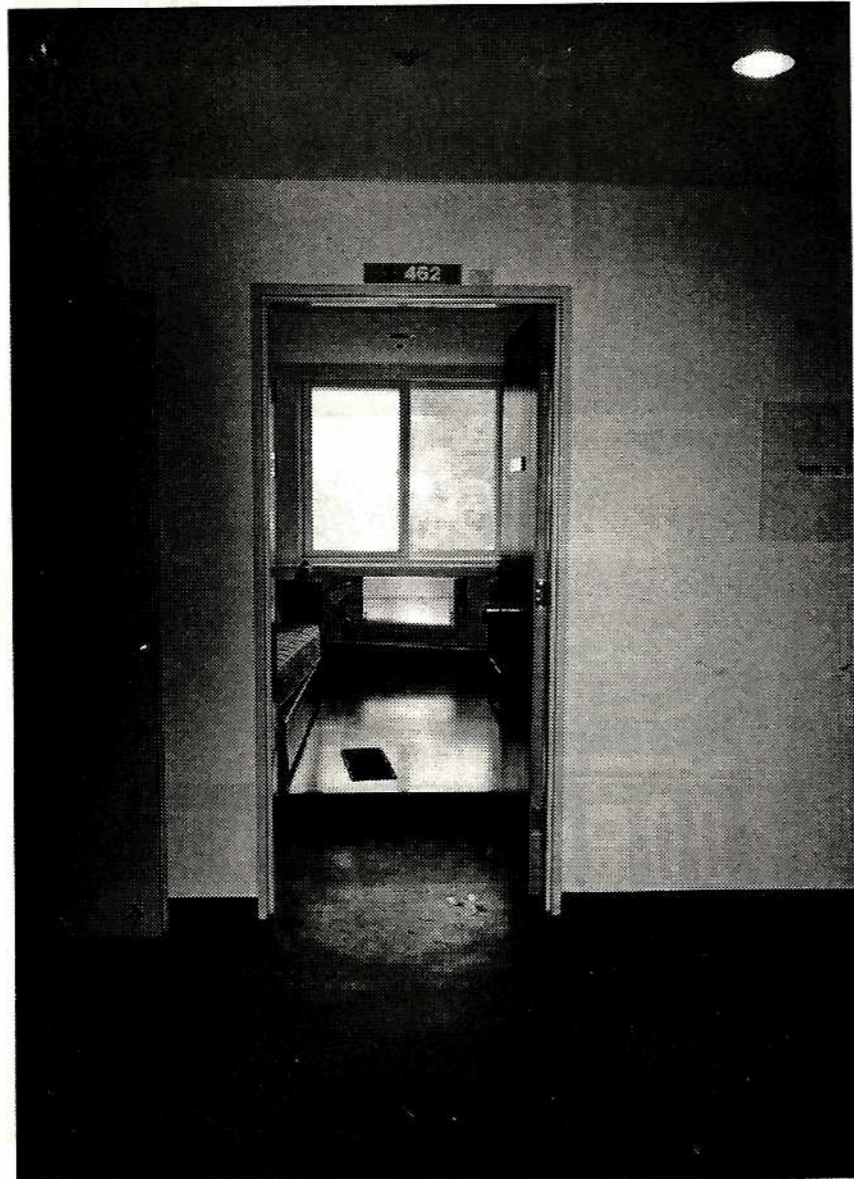


● 우석대학교의 점자프린터



● 우석대학교의 녹음기(포트랙)

나도 기숙사에 살고 싶다!



● 이화여자대학교의 기숙사 462호

대학의 편의시설

- 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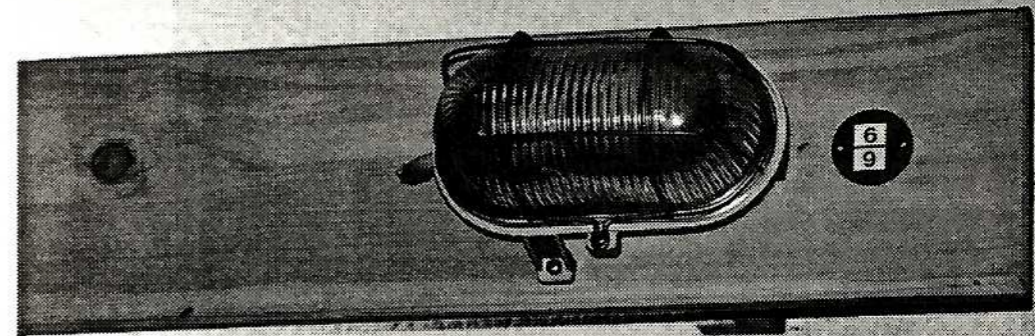
※ 다음에 소개되는 해외 편의시설 사지는 2000년도 장애인편의시설축진시민연대에서 개설한 편의시설 시민대학과 편의시설 전문 아카데미를 수료한 수료생들이 해외연수 기간동안 영국(캠브리지 대학), 독일(홍볼트, 보쿰 대학)을 방문하여 직접 촬영한 자료입니다.

독일 보쿰 대학

독일의 보쿰대학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기숙사가 있다. 처음 계획당시에는 장애인들만을 위한 기숙사로 지어졌다가 장애인들 스스로 분리되는 것을 거부하고 비장애인과 함께 있을 것을 요구하여 지금은 50:50의 비율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 보쿰대학의 기숙사 출입문 여닫이식 자동문으로 되어있으며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밖에서 호출을 하면 문을 열어 주게 되었다. 버튼은 누구나 쉽게 누를 수 있도록 낮은 곳에 위치해 있다.



○ 기숙사 복도에 있는 비상점멸등 청각장애인이 화재와 같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알 수 있도록 불이 반짝이는 점멸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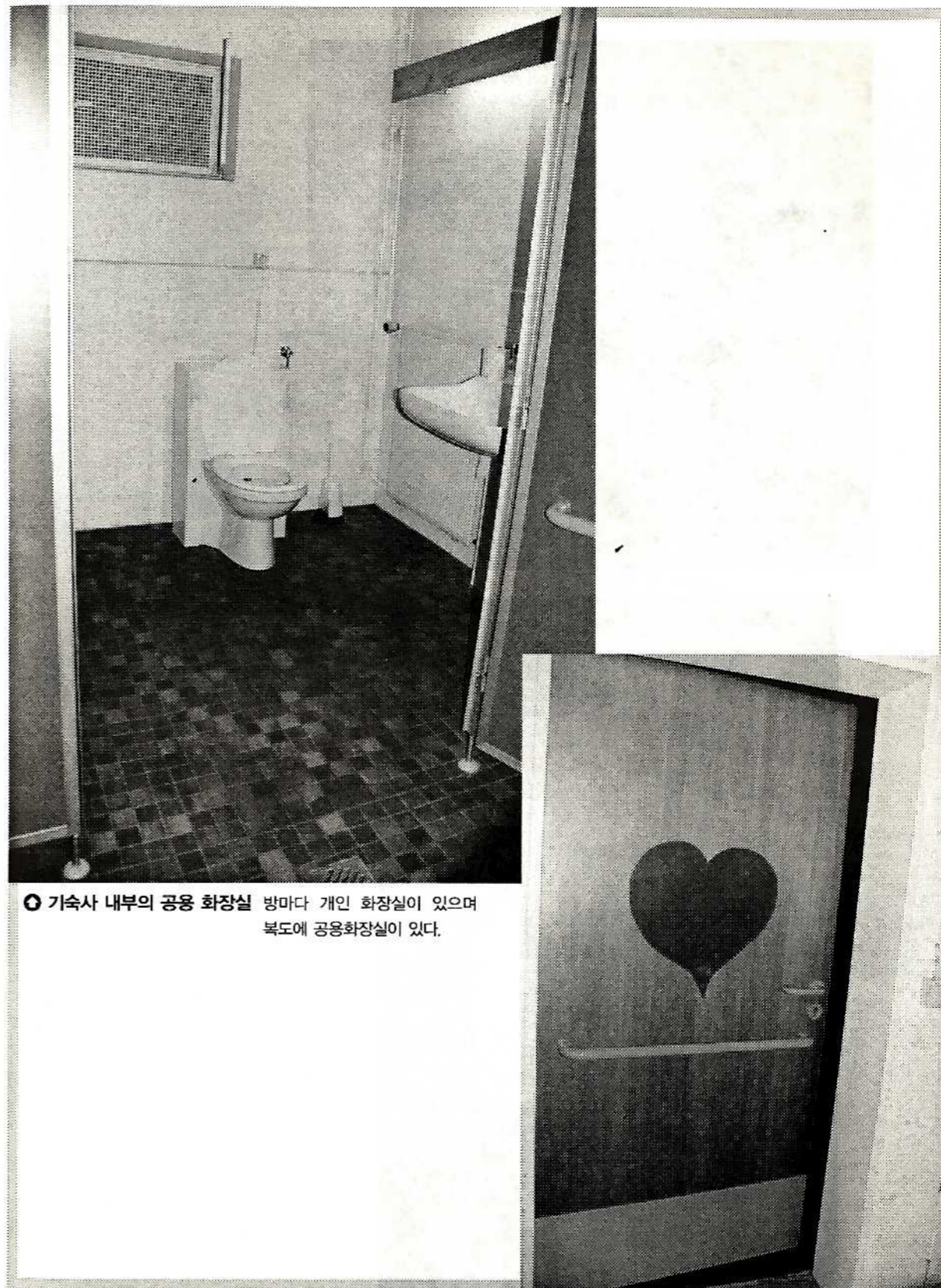
○ 방 안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고벨을 누르면 문 윗쪽 등에 불이 들어오게 되어 복도를 지나는 누구든지 보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누구나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레버식 손잡이와 넓은 손잡이를 하나 더 설치하여 다양한 사람이 문을 여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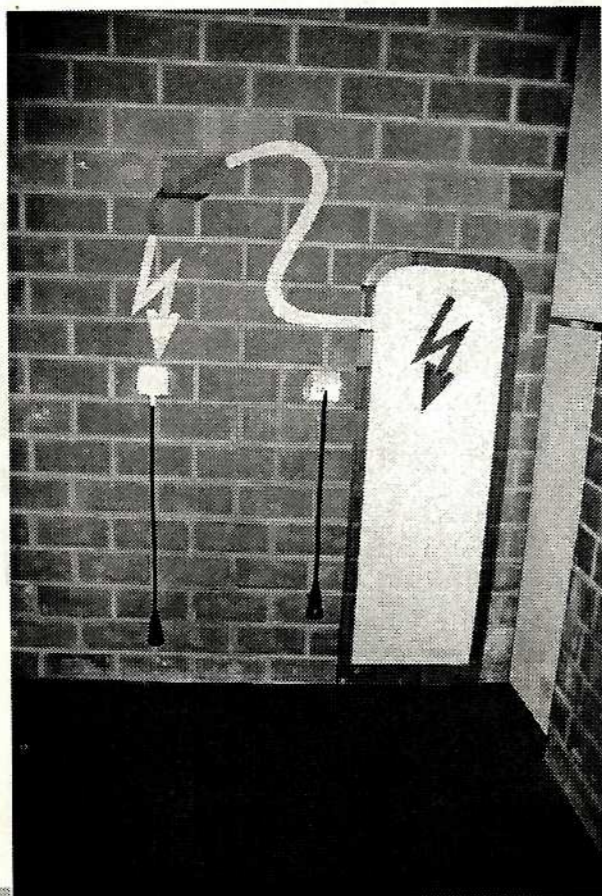
○ 기숙사 방안 방 안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수동이나 리모콘으로 버튼을 조작하면 외부의 응급구조대와 직접 연결이 되고 방문 윗쪽에 설치되어 있는 전구(왼쪽 페이지 상단)에 불이 들어와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고 표시를 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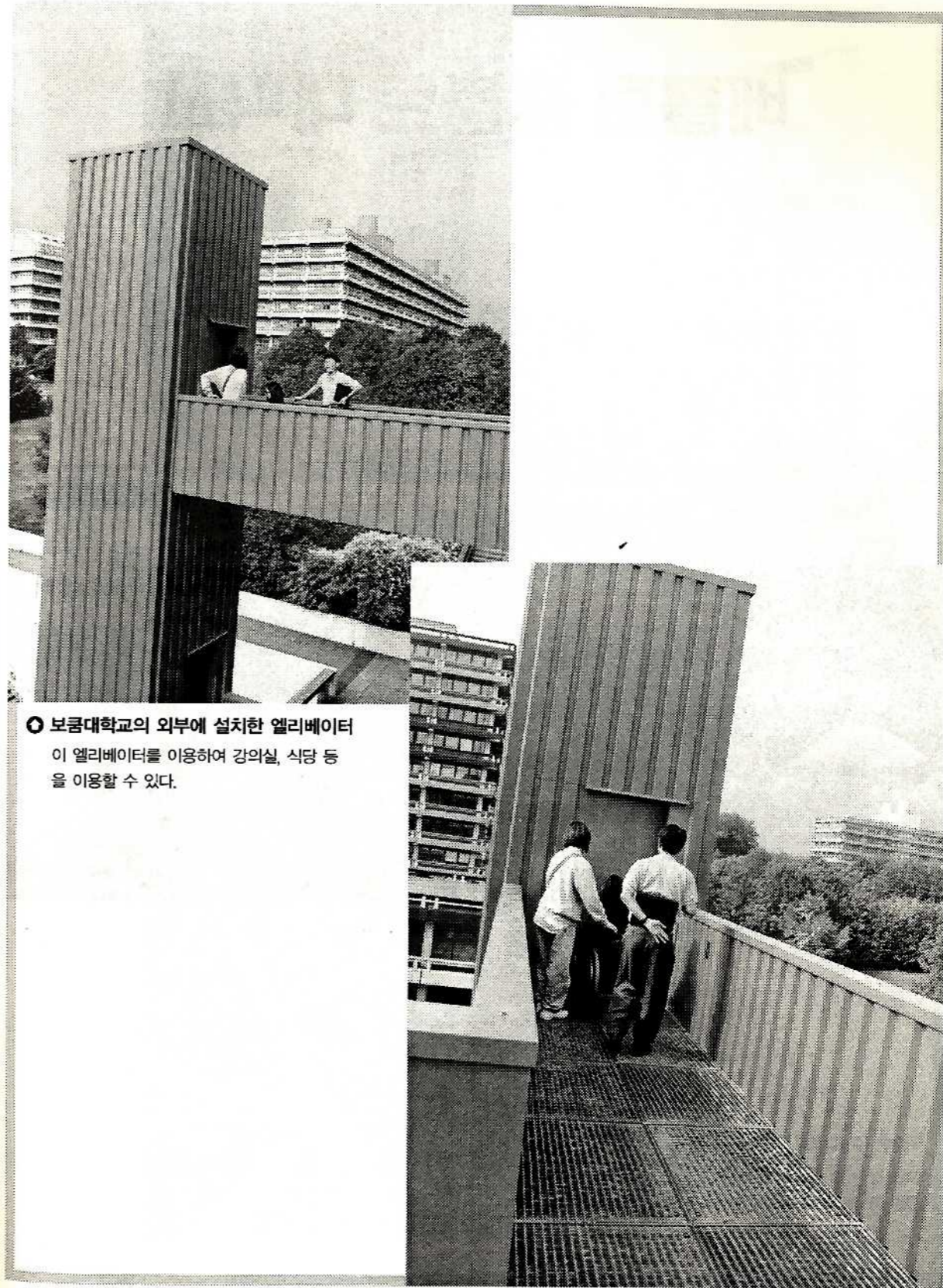
○ 기숙사에 사는 보림대학교 학생 간신히 손을 움직이는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컴퓨터, 전동 휠체어를 학교에서 제공받아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고 원하면 자동차도 지급된다고 한다. 컴퓨터는 말로 모든 작동이 가능하다.



○ 기숙사 내부의 공용 화장실 방마다 개인 화장실이 있으며 복도에 공용화장실이 있다.



● 복도에는 전동휠체어 및 휠체어 캐리어를 충전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고 있으며 휠체어 캐리어는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보름대학교의 외부에 설치한 엘리베이터 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강의실, 식당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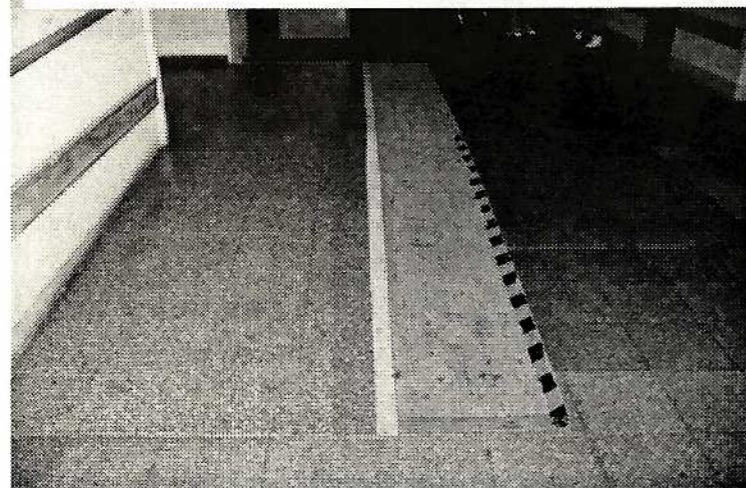
○ 베를린의 훔볼트 대학교 전경



○ 훔볼트 대학교 주 출입구
멀리서보면 턱만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가면 턱 양옆으로 완만한
경사로가 놓여 있다.



대학 내 로비의 넓은 계단 뿐 아니라 왼쪽 벽의 안내표지를 따라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다. 통로의 입구는 자동문으로 되어있다. 복도 끝에는 경사도가 설치되어 있고 폭을 더 넓히기 위해 나무로 연장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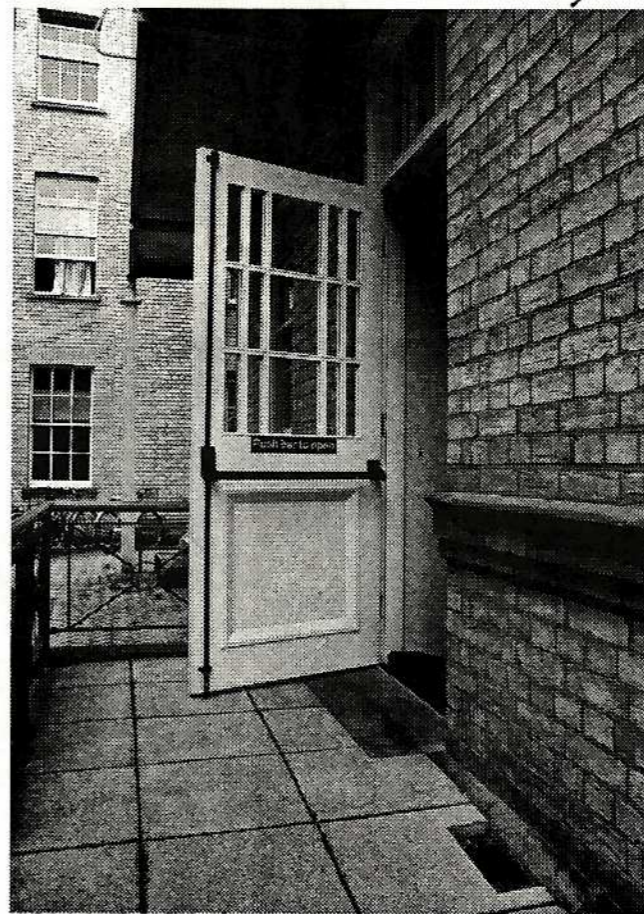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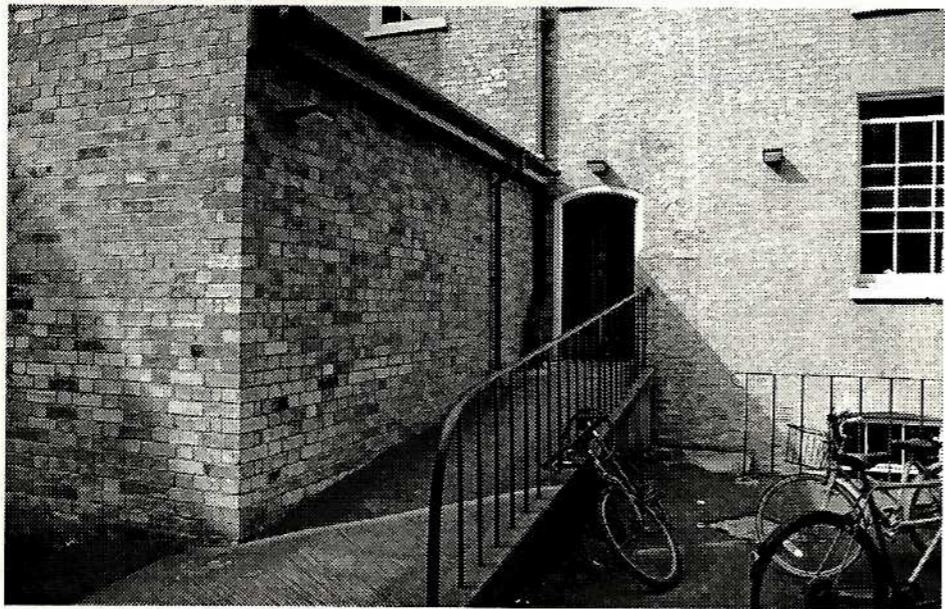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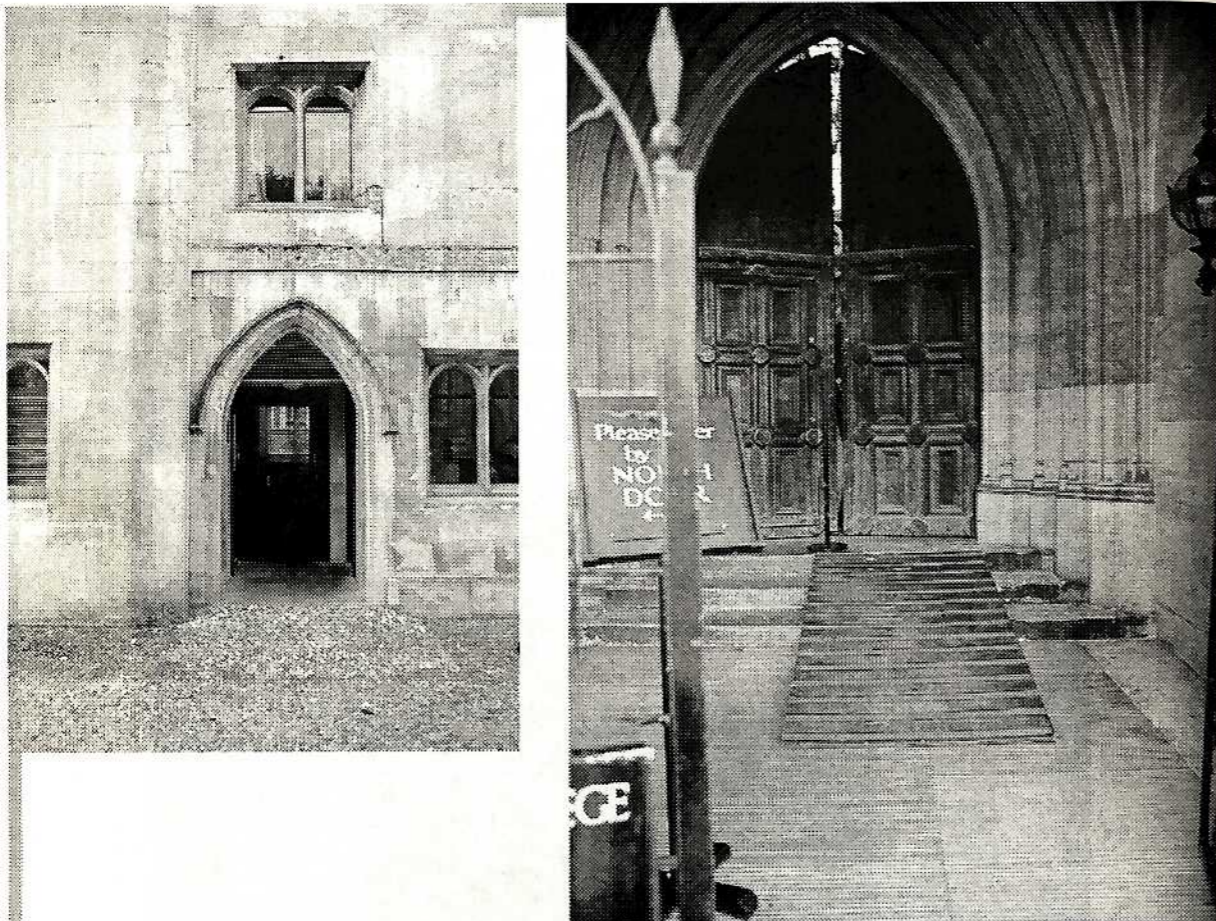


보기에도 좋은 경사로!

캠브리지 대학은 그 명성에 못지 않게 건물이 오래되어 편의시설을 갖추기가 어려울텐데 곳곳에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묻어 있다. 또한 주변의 환경과 어울리도록 그 재질과 색깔까지 고려해서 설치한 경사로는 보기에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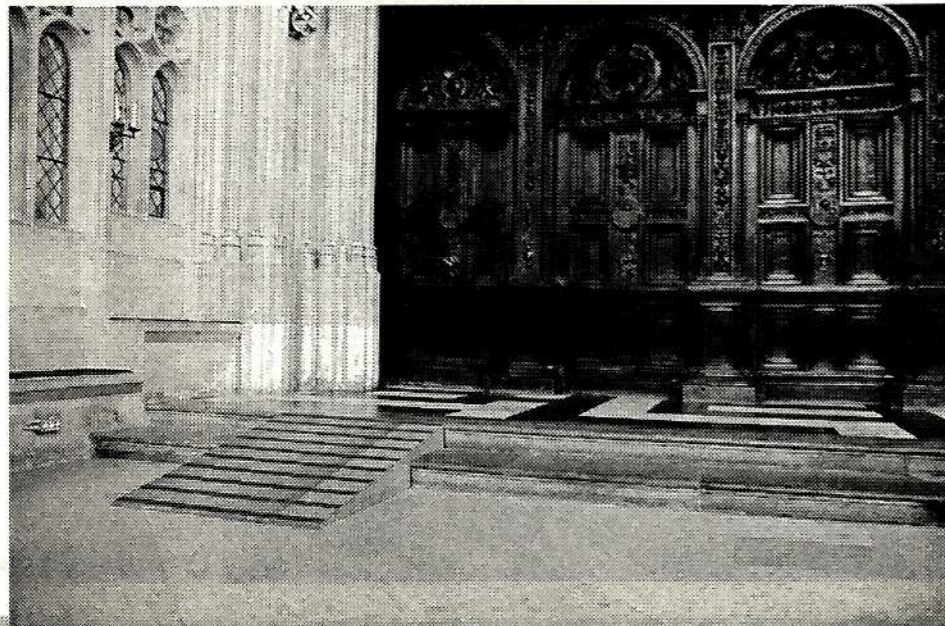


● 경사로와 함께 있는 자동문



○ 캠브리지 대학 교회의 경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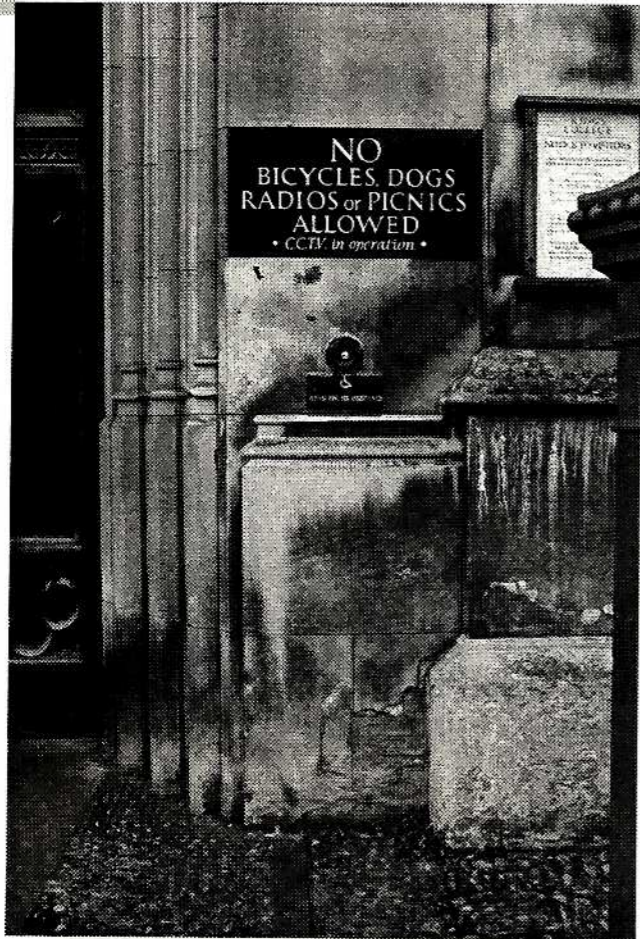
앞문과 주변 환경에 맞춘 경사가 보기에 좋다.



○ 스티븐 호킹박사가 사용하던 건물에 박사를 위해 임시로 설치한 경사로
 지금은 호킹박사의 사무실이 신축건물로 이전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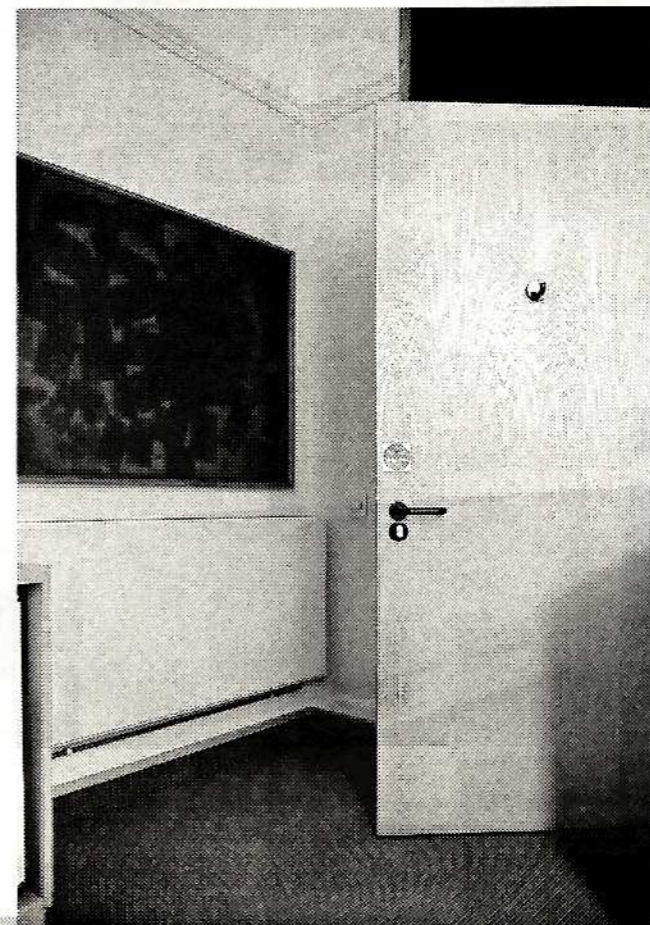


● 도어호출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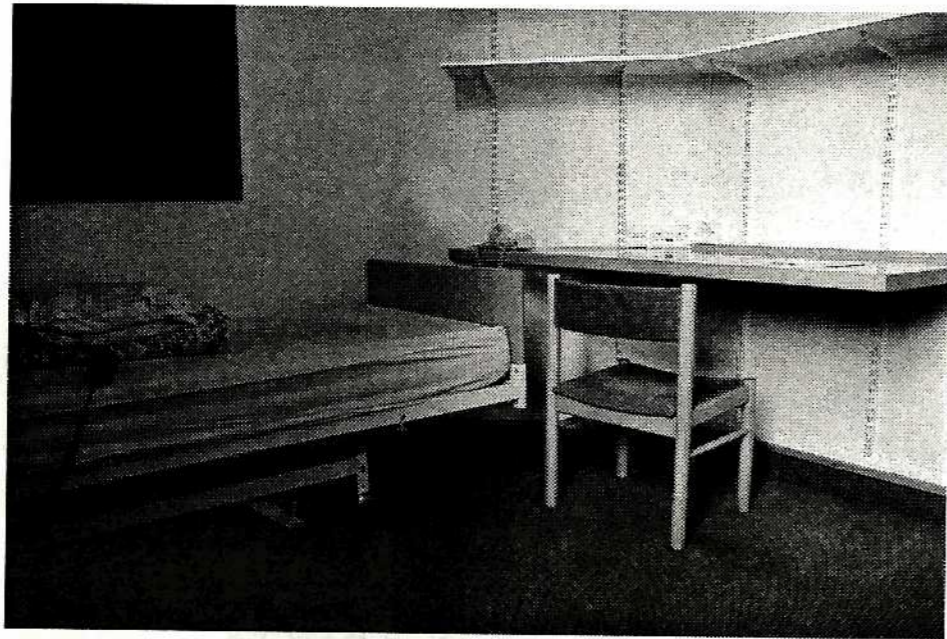
입구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마련한 호출벨! 눌러만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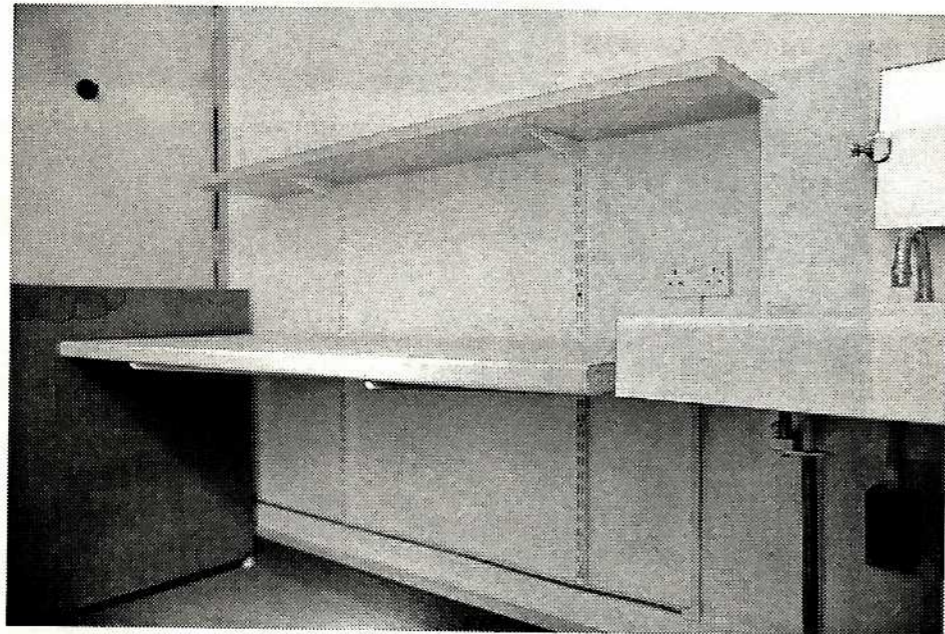
● 기숙사 방 전경



● 기숙사 출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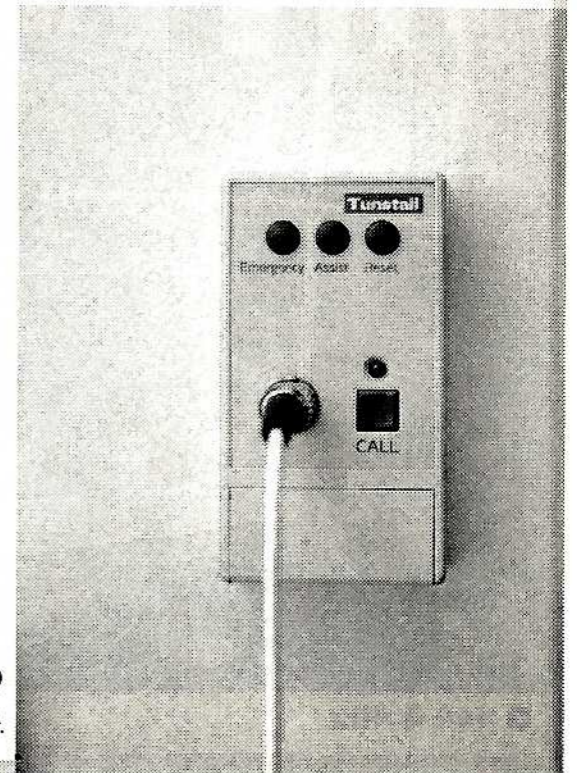
○ 새로 지은 장애인용 기숙사 턱없는 방과 넓은 내부,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진 책상과 침대, 누구라도 여기서 살고 싶지 않을까요?



○ 기숙사 방의 책상



○ 기숙사 방 세면대



기숙사 방 비상호출벨 ○
줄을 잡아당기면 호출벨이 작동한다.



○ 기숙사 내 화장실



○ 기숙사 내 샤워실



○ 기숙사 샤워실 내 비상호출벨

편집후기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무장애대학교 만들기 팀

편집후기라기보다는 앞으로 무장애 대학교를 더 잘 만들기를 위한 결의문을 쓰는 심정으로 이 글을 쓴다.

이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밤을 지냈고 맘 고생들도 많이 했다.

그러나 그 밤샘도 그 고생도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다닐 장애인들에 대한 평등과 교육권에 대한 확고한 약속과 믿음을 준비하는 시간과 다름이 없다.

지난 7개월 동안 이 보고서를 위해 함께 했던 편의연대 김형욱 간사와 김형수 연구원, 부족한 시간을 쪼개어 같이 밤을 지새며 자료를 정리한 무장애 대학교를 같이 하는 각 학교 후배들의 노력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었다.

이 보고서의 완성은 무장애 대학 만들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그 권리 투쟁을 위한 몇 안 되는 준비 작업일 뿐이다.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와 뜻을 같이 할 사람이 한 두 사람은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공기를 호흡하는데는 돌창문 하나라도 족하다는 R. 롤링의 말처럼 각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학생들과 우리들은 '같은 뜻'을 호흡했고 그 '同志'가 완성된 지금 우리는 그 결과에 따라 변화와 실천을 할 때가 온 것이다.

"언을 수 없는 목적들의 '희망목록(wish list)'이나 일련의 '모성애적(motherhood)언급'은 백해무익하다. 하나의 전략은 그것이 어떠한 영향력이라도 가지려면 실용적이고 성취가능하며 적절성을 가져야 한다"는 어느 노동자 말처럼 우리의 이후 실천에 대한 진실은 항상 구체적일 것이다.

이 지면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결의를 다지는 연유는 무장애 대학을 진행하는 동안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우리는 한 명의 동지를, 후배를 가슴에 묻어야 했기 때문이다.

바로 우석대 특수교육과 은선명 학우가 우리와 함께 그 꿈을 일궈내기도 전에 불의의 사고로 우리의 걸을 떠난 것이다.

다시 한번 은선명 학우가 못다 이룬 꿈을 치열하게 살며 이루기를 다짐해 본다.

아울러 하늘 나라에서 어느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을 은선명 학우에게 이 자료집을 바친다.

끝으로 무장애 대학교를 함께 하고 앞으로도 먼길 함께 갈 각 학교의 후배, 선배 동지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전한다.

무장애 대학교 만들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참여대학 : 건국대학교 7날지기
고려대학교 하나둘다섯
공주대학교 특수교육학과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반딧불
대구대학교 유아·초등·중등·치료특수교육과
대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학술통아리 '사람 사랑'
동국대학교 장애인인권행동위원회
명지대학교 키비탄
삼육대학교
서강대학교 손짓사랑
서울대학교 장애문제연구회손말사랑
숙명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우석대학교 평등세상을위한행동선언
이화여자대학교 무장애대학교만들기팀
장로회신학대학교 총학생회
전주대학교 장애인권위원회
중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한양대학교 키비탄

엮 은 이 전정옥
펴 낸 이 이계준
펴 낸 날 2001년 10월 31일
펴 낸 곳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58-1
 종로오피스텔 1306호
전 화 02-765-6835
팩 스 02-765-1385
홈페이지 www.accessact.org
이 메 일 accessk@nownuri.net

정가 10,000원

무장애대학교만들기는 국정홍보처의 2001년도 민주공동체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